국제 금융 속보

국제금융센터
Flash News
2022. 5. 16
해외동향부 (제 6208)

■ **주요 뉴스: 미국 4월 소매매출 발표 예정, 고물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확인에 관심**

○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 ECB는 7월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

○ 중국 국무원,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

○ 일본은행 총재,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경계. 하지만 완화기조 유지는 재확인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고강도 통화긴축과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2.4%], 달러화 강세[+0.9%], 금리 하락[-21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고물가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 지수는 금융주 및 자동차 관련주 강세로 0.8%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의 여타 주요국 대비 차별화된 통화긴축 속도 등이 원인
유로화가치는 1.3% 하락, 엔화는 1.0%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8bp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0.9% 상승, 한국 CDS 상승

		5/13일	5/6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023.9	4,123.3	-2.41%
	유럽	433.48	429.91	0.83%
	중국	3,084.3	3,001.6	2.76%
	일본	26,428	27,004	-2.13%
	한국	2,604.2	2,644.5	-1.52%
환율	달러지수	104.56	103.66	0.87%
	유로화	1.0412	1.0551	-1.32%
	엔화	129.22	130.56	1.04%
	위안화	6.7892	6.6668	-1.80%
	원화	1,284.2	1,272.7	-0.90%

		5/13일	5/6일	전주말대비
국채금리 10y	미국	2.92%	3.13%	-21bp
	독일	0.95%	1.13%	-18bp
CDS 5y	한국	46bp	42bp	4bp
	중국	83bp	84bp	-1bp
위험지표	EMBI+	410	393	17bp
	VIX	28.87	30.19	-4.37%
원자재	WTI유	110.49	109.77	0.66%
	구리	418.1	426.2	-1.90%
	금	1,811.8	1,883.8	-3.8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4월 소매매출 발표 예정, 고물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확인에 관심**

○ 5/17일 통계국은 4월 소매매출을 발표할 계획. 통계국에 따르면, 4월 소매매출의 전월비 증가율은 0.7%를 나타내 3월(0.5%) 보다 상승할 가능성. 다만 자동차를 제외할 경우 증가율이 0.3% 그쳐 3월(1.2%) 대비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

○ 실제 결과가 이러한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면 높은 인플레이션은 아직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 이러한 모습은 꾸준한 물가상승과 소비자의 양호한 구매 욕구가 결합된 결과

○ 소매매출은 물가변동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은 상당한 수준으로 소매매출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관측.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매매출이 27% 늘었으나, 인플레이션 조정 적용 시 실제 증가율은 7%에 불과

○ 항목별로는 자동차와 휘발유 부문에 주목. 최근 신차 가격 상승을 참고한다면 자동차 소매매출은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 반면 휘발유는 가격 민감도가 낮고 최근 가격도 완만한 하락세. 이에 해당 소매매출도 전월비 감소했을 소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조사, 향후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및 성장 둔화를 예상**

○ 이번 조사에 참여한 34명의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금년 성장률 전망을 2.3%로 추정하여 3개월 전에 비해 1.9%p 하향 조정. 반면 금년 2/4분기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 전망치는 7.1%로 예상하여 이전 조사(3.8%) 대비 큰 폭 상승

■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 ECB는 7월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

○ 센테노 총재는 ECB의 7월 금리인상을 계기로 완화적 통화정책의 점진적 철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지금까지 통화정책 정상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많으며, 향후에는 보다 공격적인 긴축이 필요하다고 첨언

■ **유럽위원회, 금년 역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향**

○ 블룸버그가 확인한 초고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5/16일 발표 예정인 금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4%→2.7%)하고, 인플레이션은 상향(3.5%→6.1%) 예상

■ **중국, 생애 첫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하향. 부동산 수요 촉진이 배경**

○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해당 조건이 충족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한선을 20bp 인하한다고 발표. 이번 조치는 주택수요 지원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이 목적이라고 설명

■ **중국 국무원,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

○ 금년 1000만명 이상의 대학 졸업생이 양산될 것으로 예상되나 고용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지적. 이에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금우대, 대출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

■ **중국 인민은행, IMF 특별인출권(SDR)에서 위안화 비중이 확대**

○ SDR 가운데 위안화 비중이 상승(10.92%→12.28%)했다고 발표. 또한 중국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시장 진입 과정을 좀 더 간소화하겠다고 강조. 한편 미국 달러화의 경우도 비중이 상승(41.73%→43.38%)

■ **인도, 밀 수출을 금지. 세계 식량 부족 우려가 증대**

○ 정부는 5/14일 해당 내용을 결정. 밀 생산량이 급감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무분별한 수출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밀 가격의 급등을 초래했다고 진단

■ **일본은행 총재,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경계. 하지만 완화기조 유지는 재확인**

○ 구로다 총재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기업이 사업계획 관련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다만 지금은 강력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 한편 최근 인플레이션이 목표인 2%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이는 에너지 가격 급등의 결과로 지속력 등이 취약하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5/13 현지시각 기준)**

○ 유로존 3월 산업생산(전월비): -1.8%, 2월(0.5%), 예상치(-2.0%)

■ **주요 경제 이벤트(5/16 현지시각 기준)**

○ 미국 5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중국 4월 소매매출 및 산업생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글로벌 공급망 회복, 중국 경제봉쇄 해제 시에도 수개월 소요 가능성 - Financial Times**
(Shanghai lockdown exposes global supply chain strains)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충격 및 공급비용 상승이 확산. 다만 중국의 생산 및 해상운송 정상화가 시작되어도, 미국과 유럽의 3/4분기 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물류시설 부족을 고려한다면 즉각적인 공급 차질 해소는 기대난

○ 특히 유럽 및 미국 항구에서의 물류 적체가 아직 심각한 상황이기에 추가적인 중국의 수출물량 처리는 기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다면 중국 경제봉쇄가 해제되어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투자자들의 기존 포지션 유지, 대체할 수 있는 투자처 부재가 원인 - WSJ**
(Investors Stay Put, Because They Can't Think of Better Options)

○ 고물가, 통화긴축,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 및 채권 가격도 하락. 가격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대안이 될 수 있는 현금도 고물가에 따른 구매력 저하 우려가 있는 등 위험회피 수단이 부족한 상황

○ 이에 투자자들은 기존 포지션의 조정에 소극적. '21년 이후 주식형 펀드에 유입된 자금 가운데 회수된 비중은 4%에 불과. 이는 투자자들이 아직 패닉 상태는 아니라는 증거. 여타의 주요 자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미국 정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경기부양책 축소와 관세 인하 등이 요구 - 블룸버그**
(Biden Can Do Much More to Fight Inflation)

■ **EU의 러시아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소지 - 블룸버그**
(How Russian Is It?: A Very Crude Question)

■ **암호화폐 시장 안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필요 - Financial Times**
(Stablecoins need to be tethered by real-world rule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